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지난 수요일[11월 10일] 영국의 노동자·학생·빈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보수당을 강타했다. 학생·강사 등 5만 명이 1년 등록금을 최대 9천 파운드(약 1천6백만원)까지 올리려는(기존 등록금의 3배를 올리려는 시도였다!) 정부의 발표에 반대에 거리를 점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노동계급 배경의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시위대는 학과·교직원 축소, 자녀교육수당 폐지도 반대했다.

유럽을 휩쓴 분노가 런던을 덮쳤다. 시위는 활기에 넘쳤고 분노에 찬 시위대는 “보수당 쓰레기”라고 연이어 외쳤다. 시위는 이윤을 사람들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보여 줬다.

밀뱅크에 있는 보수당사는 그 모든 것의 상징이다. 시위대가 보수당사 앞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이탈해 당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일부가 로비를 점거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거에 가담했고, 학생과 강사 5천 명이 주변 도로를 봉쇄하며 보수당에 항의했다.

이번 시위와 점거가 보수당에 맞서 기꺼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는 점이 진정한 핵심이다. 굴복이 아니라 저항을 택한 것이다.

전국학생연합(NUS) 의장인 마크 버그펠비는 이렇게 말했다 “보수당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프랑스의 반란이 이제 영국에도 찾아왔습니다. 밀뱅크 행동은 반란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예산 삭감을 [과거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린] 인두세 반란의 최신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를 시행한다면서 사실상 내년 등록금을 5% 올려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냈다. 이미 한국은 OECD국가 중 등록금액수가 최고 수준이다. 또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부담 비율은 겨우 15퍼센트밖에 안 된다(OECD 평균은 78퍼센트). 4대강 삼질할 예산의 일부

만 투여해도 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한국의 학생들도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야만적인 등록금 인상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

11월 15일

대학생다함께(stu.alltogether.or.kr)